

“10명 모두 한마음...이 악물고 1승 해보자 다짐”

도전! 2022 항저우

남부대학교 강조민지

46억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대축제 2022항저우아시안게임이 오는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중국 항저우 일원에서 열린다. 1990베이징아시안게임, 2010광저우아시안게임에 이어 중국에서 개최되는 3번째 하계 아시안게임이다. 대한체육회는 종목별로 대표선발전을 치르는 등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 준비 일정을 시작했다.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광주·전남 소속 선수들은 금9·은5·동7개 등 총 21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한국선수단(금49·은58·동70)의 3위 성적을 뒷받침했다.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메달과 새 역사에 도전하는 광주·전남 대표 선수들을 소개한다.

여자수구 국가대표 발탁 인천선수촌 입촌 훈련 중 자유형 배영 단거리 전문 수구에 적합한 신체조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첫 골의 감동 다시 한번”

한국 여자수구 대표팀은 지난 17일부터 인천선수촌에서 훈련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여자수구 대표팀이 꾸려진 것은 지난 2019년 7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개최국 자격으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돼 사상 처음으로 여자수구 대표팀을 구성했다. 연맹은 여자수구 발전을 위해 지난해 11월 제주도에서 여자수구 국가대표 선발대회를 치러 10명의 선수를 선발했다. 선발된 선수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말 이문 교육 등을 마쳐 이날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남부대학교 강조민지(20)도 선발전을 통해 태극마크를 달았다. 강조민지는 자유형과 배영 단거리 선수다.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방과후수업으로 수영을 접한 강조민지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며 곧바로 엘리트선수로 뛰기 시작했다. 물론 경쟁선수였다. 수구는 대표팀 선발전을 위해 시작했다.

강조민지는 18일 전남매일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학교에 수구팀이 있어서 (수구에)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교수님께서 수구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추천해주셨고,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원했다”며 “학교 수구팀 선수들에게 조금 배워서 선발전에 출전했다. 쉽지 않았는데 발탁이 됐고 지금은 선수촌에서 훈련중이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여자수구 대표팀은 지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당시 겨우 한 달 반 정도 훈련 후 대회에 나섰다. 헝가리와 첫 경기에서 0-64라는 기록적인 패배를 당하는 등 세계적 강호들을 상대로 5전 전패를 기록했다. 하지만 엄청난 실력 차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러시아전에서 역사적인 첫 골을 성공시키며 큰 감동을 줬다.

대한수영연맹은 여자수구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다시 대표팀을 구성했다. 본격적인 훈련을 위해 정서한 수구 전문 지도자도 선임했다. 목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국제대회 출전이다. 강조민지는 볼 컨트롤 기술, 공격과 수비능력, 기초체력 등의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튿날 알아누웠을 정도로 강도 높은 테스트였지만 선수촌에 입촌해 훈련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해보니까 정말 재밌다”고 즐거워했다. 강조민지는 “운동은 어디서나 다 힘든 것 같다”고 웃으면서도 “힘들긴 하지만 코치님이



강조민지

재밌게 알려주시고, 선수들이 다 같이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팀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밝혔다. 이어 “힘들긴 하지만 모두 열심히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쉬는 시간에 모여서 얘기할 때면 광주대회에서 골 자체만으로 감동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잘해서 1승을 해보자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구 전문 선수가 아니었기에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다들 이 악물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시안게임 여자수구는 지역 예선 없이 6-7개 팀이 경쟁할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태국은 이미 여자수구가 활성화돼 있으며 한국은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강조민지는 수구대표팀에 추천한 이승재 남부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는 “수영연맹에서 여자수구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국가대표팀도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국제대회 출전이 목표다. 선수들 말처럼 현실적으로 1승을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조민지에 대해서는 “신장 170cm에 스피드도 빠르고 수구에 적합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남부대가 여자수구팀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강조민지가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섰고,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고 말했다. 남부대는 지난해 3월 경영과 수구종목 18명으로 수영선수단을 창단했으며 전 수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한 이승재 교수가 감독을 맡고 있다. 선수단은 학교 내에 있는 국제규모의 남부대학교수립국제수영장에서 훈련 중이다. 강조민지는 “경쟁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대회에도 나서면서 경영과 수구를 병행할 생각”이라며 “남은 기간 준비를 잘해서 후회 없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진화 기자



김정환, 구본길, 오상욱, 김준호로 구성된 한국 펜싱 대표팀이 17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사브르 월드컵 남자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도쿄 대회에서 남자 사브르 단체전 우승을 합작한 멤버다. 왼쪽부터 김준호, 김정환, 오상욱, 구본길. /대한펜싱협회 제공

펜싱 남자 사브르 월드컵 단체전 우승컵

여자 대표팀은 은메달

지난해 2020 도쿄올림픽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새해에도 건재함을 뽐냈다. 김정환, 구본길(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오상욱(성남시청), 김준호(화성시청)로 구성된 대표팀은 17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사브르 월드컵 남자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의 남자 사브르 단체전 우승을 합작한 멤버다. 만행 김정환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잠시 대표팀을 떠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구성이 거의 바뀌지 않은 채 4명의 선수가 끈끈한 호흡을 자랑하며 세계 최정상

치고 있다. 2017년부터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을 놓치지 않았고,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도쿄올림픽 등 단체전 우승을 씩씩이하며 팀 세계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도쿄올림픽 때 가장 못지않은 깔끔한 외모로 주목받으며 ‘어벤져스(어벤져스+펜싱)’로 불린 이들은 금메달 이후 각종 방송의 ‘러브콜’을 받고 바쁜 시간을 보내기도 했으나 새로운 시즌 시작 이후엔 다시 피스트에서 빛나고 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새해 첫 국제대회 단체전에서도 흔들림 없는 입지를 확인했다. 이번 대회 16강부터 튀니지, 이집트, 러시아를 연파하고 결승에 오른 한국은 독일과의

결승전에선 45-38로 승리했다. 같은 곳에서 열린 여자 사브르 월드컵에서도 메달 소식이 들려왔다. 김지연, 윤지수(이상 서울특별시청), 최수연, 서지연(이상 안산시청)으로 구성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단체전에서 프랑스에 이어 준우승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들 네 명 역시 도쿄에서 한국 여자 사브르의 첫 올림픽 단체전 입상(동메달)을 함께 일군 바 있다. 한국 남녀 사브르 대표팀은 새해 첫 월드컵 단체전에서 나란히 결승에 진출하고 시상대에 서며 아시안게임 전망을 밝혔다. 한국은 남녀 사브르 모두 올해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 단체전 3연패를 노린다. /연합뉴스

금호고 정종훈 U-19 축구대표팀 소집

24일부터 6일간 2차 훈련 참여

금호고등학교 정종훈(19·FW)이 남자 19세 이하(U-19) 축구대표팀 1월 2차 훈련에 소집됐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U-19 대표팀은 17일부터 29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첫 훈련을 실시한다. 전체 소집 훈련에는 총 50명의 선수가 참여하며 25명씩 1, 2차로 나눠 각각 6일씩 진행된다. 김은중 감독은 22일까지 진행되는 1차 훈련에 이승환(포항), 최성민(강원), 이영준(수원FC) 등을 불러들여 점검에 나선다. 정종훈은 18일 발표된 2차 훈련 참가 명단에 포함돼 24일부터 훈련에 참여한다. 정종훈은 지난 2020년 알가르베 U-17(17세 이하) 국제축구대회에서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정종훈

170cm·62kg의 체격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공간점투와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공격수로 평가받고 있다.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발기술로 측면까지 소화 가능하며 저돌적인 플레이 스타일이다. 이광주 출신 국가대표 나상호와 흡사하다는 평이다. U-19 대표팀은 오는 9월 열리는 아시안컵(U-20 아시안컵) 예선에 참여한다. 예선을 통과할 경우 내년에 열리는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하고, 본선에서 4위 안에 들면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출전권을 얻을 수 있다. /최진화 기자

광주FC 신예 골키퍼 노희동 영입

공중볼 캐치·일대일 방어 강점

광주FC가 신예 골키퍼 노희동(19)을 영입했다. 광주는 “지난 시즌 김해시청에서 활약한 골키퍼 노희동을 신인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노희동은 192cm 88kg의 큰 키를 활용한 공중볼 캐치와 일대일 방어, 뛰어난 반사신경이 강점이다. 지난 2017년 제53회 추계한국중등축구연맹전에서 대륜중을 우승으로 이끌며 최우수 골키퍼상을 받았다. 강원 흥천 안정환FC U-18에서도 침착한 플레이어와 안정적인 수비



노희동

운영으로 2020 강원 지역전국고등축구리그 준우승(GK상 수상), 2020 금강대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4강을 견인했다. 지난해는 K3리그 김해시청에서 뛰었다. 노희동은 “꿈에 그 리던 프로에 데뷔하게 돼 벅차고 설렌다”며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

KIA 브리토·윌리엄스 20일 입국...놀린은 25일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선수 3명이 모두 이달 안에 한국에 온다. KIA 구단은 18일 “외국인 선수 소크라테스 브리토(30)와 로니 윌리엄스(26)가 20일, 선 놀린(33)이 25일 각각 입국한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외국인 선수 셋은 입국과 동시에 곧바로 광주 인근 숙소로 이동해 2주간 격리에 들어간다.

격리를 마치면 2월 1일부터 합평 KIA 챌린저스필드에서 열리는 1군 선수들의 동계 훈련에 합류해 정규리그 대비 훈련을 시작한다. KIA는 앞서 지난해 27일 외야수 브리토와 총액 90만 달러(읍선 30만 달러)에, 오른손 투수 윌리엄스와 총액 75만 달러(읍선 35만 달러)에 계약했다. 이어 이달 9일에는 왼손 투수 놀린과 총액 90만 달러(읍선 30만 달러)에 계약해 2022년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쳤다. /조혜원 기자